



머리글

이중현 요셉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2,17)

제가 사는 공동체에는 7명의 신부님이 함께 생활합니다. 각자 소임이 다르기에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가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식단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모두가 헬스 트레이너에 식이요법 권위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냥 배 나온 아저씨들의 대화일 뿐이지요. 다들 운동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운동방법, 식단조절, 다이어트에 대한 열띤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 저희 앞에는 술과 기름진 음식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니, 이번 여름 다이어트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비단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 교회 문헌들, 영성적인 자료 등 많은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검색 몇 번만 하고 채널 몇 번만 돌리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식별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분명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귀찮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삶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보다는 권리에만 더 집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2,17)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계명을 단지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살아가고 실천하셨고, 그래서 항상 가난한 이들, 소외당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신앙이야말로, 삶으로 증거가 되는 신앙이어야 말로 참된 신앙임을 몸소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삶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직접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매 순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굽는 마음으로 붕어빵을 구워내며

길가에 나무들이 연록의 순한 잎들을 가득 그 머리에 이고 있다. 4월하고도 중순, 봄이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후 ‘평화의 집’에 왔으니 어느새 한 계절이 지났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교육받고 결혼해 아내랑 딸과 단란하게 살던 내가, 혈혈단신으로 평화의 집에 오게 된 지금까지의 일이 봄날의 긴 꿈 같다.

건축기사로 출발해서 해외노무자 관리과장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유혹을 받게 되었다. 당시 안면 있는 분들의 부탁으로 여권을 발행해 준 일들이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로 한 일이었는데, 여기에 돈과 향응이 뒤따랐고 사치와 여자, 향락에 빠진 나는 해외 이민을 불법으로 주선해주는 브로커들과 손잡고 나의 지위를 이용해 여권을 변조해주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해준 사람들 30명이 밀입국자로 체포되었다. 나는 그일로 감수되어 8개월 형을 치렀다.

출소한 후 피부 미용업에 뛰어들었다. 건축기사로 싱가포르에 있을 때 배운 피부미용에 관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한 그 일은 잘 되었다. 그러자 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동업을 제의해서 함께하게 되었다. 워낙 수익성이 뛰어나자 욕심이 난 사장은 피부미용 한방비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것을 거절하자 사장은 근 4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아내가 막달이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 결국 유산을 했다. 그길로 회사로 뛰어간 나는 화를 참지 못해 눈앞에 있는 카세트를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 일을 꼬투리를 잡아 사장은 나를 주거침입, 절도라는 명목으로 고소했고 나는 구속되었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해 일 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출소 후 ‘평화의 집’을 알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지금 나는 붕어빵을 구워 팔고 있다. 복자수녀회 최 마리아 수녀님께서 내가 붕어빵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어려울 때마다 까따꿈바(로마에서 박해 시절 숨어서 미사를 드리던 지하무덤)를 연상하고 성체를 굽는 마음으로 빵을 구우라고. 그렇다. 나는 지금 그간의 삶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굽고 있다.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공자님께서 사람의 나이가 마흔이 되면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불혹의 나이라 하셨다. 이제 내 나이 마흔. 신앙도 삶도 이제 시작이다.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새롭게 출발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곽 바오로 -



애들아! 우리 왔다

최형선 벨라벳다_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코로나 19로 인해 고봉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가까워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거의 갔던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초기에는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바쁘게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나를 봤다. 아차 싶은 마음과 더불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시려 온다. 부활절, 성탄절, 명절 때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간식을 사다 주었다는 대표 봉사자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면 ‘잘 있겠지?’ ‘잘 있을 거야!’라는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도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그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생각한다.

한번은 처음 그곳을 들어온 친구 중 봉사자들이 자신의 자식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 옆으로 살짝 다가와 “아줌마 얼마 받고 와서 봉사해요? 일당이 얼마예요?”라는 질문을 했다. 그 말에 웃으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너희들이 좋아서 그냥 와. 너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와.”라고 대답하자 그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는 “정말이요?”라고 말하며 의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이 봉사자들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끼고 마음을 서서히 열면서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는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어른으로서, 그 친구들의 행동은 잘못이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나와 더불어 어른이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것을.

또, 바다를 생각하면 늘 떠오른 친구가 있다. 고봉중고등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0명의 친구를 선발하여 캠프를 간 적이 있다. 혹시나 도중에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바닷가에 도착한 친구들은 우리의 걱정과 달리 살레시오 신부님과 수사님들, 봉사자들과 족구도 하고 뗏목도 타면서 즐겁게 지냈다. 저녁 식사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신이 20년을 살면서 바닷가는 처음 왔다고 하며 바닷가에서 지내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함께하신 신부님과 수사님들, 봉사자들에게 땀을 싸주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가슴이 찡하였다. 그 순간 이런 모습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현존이 아닐까 생각했다. 앞으로도 고봉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소망한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또다시 천주교 반 교실을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애들아! 우리 왔다. 어서 들어와!”하고 팔을 활짝 벌려 맞이하고 싶다.



모세 (I)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모세가 ‘건져 내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샤’에서 유래합니다. 파라오의 딸이 물에서 ‘건져 났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지만(탈출 2,10),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냈다’, 혹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다’, 단순히 이집트 땅에서만 아니라, 십계명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져 났다는 여러 의미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이지만, 그는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체유기도 했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주까지 했습니다. 살인 역시,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탈출 2,12) 죽였다고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아, 폭행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과실치사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고의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하고 말하였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 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탈출 2,11-15)

모세는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사도 7,25)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듯합니다. 자신의 힘과 좋은 의지, 연민의 감정으로 동포를 해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한과 권위에 대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합당한 권위가 없는 힘의

행사는 폭력이요, 범죄일 뿐입니다. 아니, 폭력에 대하여 살인으로 양값음을 할 권리를 애초에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 한 파라오는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자신은 ‘구원’이라는 원의, 혹은 ‘도움’이라는 선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대로 상대를 이끌려는 것은 폭력과 범죄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스테파노의 증언에 의하면, 동족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의 당시 나이는 마흔 살이었습니다(사도 7,23-25). 마흔 살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양아들이었기에 정치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선과 정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가진, 선한 동기와 의욕을 가진 모세는 악이며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모든 힘을 잃고 주류(主流)에서 밀려나 비주류(非主流)가 됩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인 이집트에서 주변국으로 도망가고 동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민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탈출 2,22) 정치의 중심인 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양 떼를 치는(탈출 3,1) 목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물리적인 힘, 아니면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들이 들고는 합니다. 자녀들에게나 혹은 소수의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의 의사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좋은 것이니, 더 옳은 것이니, 이 방향이 미래에 더 이익이니 가자고 이끌어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모세에게 항변하던 그 동족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탈출 2,14)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직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덩이!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구덩이에 빠진 두 남자

한 남자가 보입니다.

남자의 발 앞에는 돌덩이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남자는 낙심한 채 그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보입니다.

이 남자는 앞에서 본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발 앞에 놓여있던 돌덩이로 열심히 흙을 파내며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의 얼굴엔

미소까지 엿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구해 주기 전까지는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듯 좌절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처 : 따뜻한 글 <https://www.onday.or.kr/wp/?p=23495>>

살다 보면 누구나 구덩이라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직장에서의 큰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불치에 병이라는 구덩이와 사업의 실패와 하는 일이 잘되지 않아 빚을 짊어지고 갚을 수 없는 빚의 구덩이에 빠지고,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싫어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이도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며 사는 이와 내 탓은 아니고 다 남의 탓이라며 남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라며 남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운명이며 받아드리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내고 안간힘을 다해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헤쳐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망이 막힌 그곳에서 뉘 놓고 하늘만 바라보거나 나도 모르게 한숨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살아내어야 합니다. 살아낼 힘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내부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앞선 이야기 속 구덩이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남자처럼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흙을 파내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구덩이는 불행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 찬미 예수님

제가 드디어 집에 갑니다.

10년간의 긴 소송, 3년간의 수감생활.

엄청난 추징금으로 가석방도 없는 암담한 징역 생활, 그 힘든 시기를 성경을 쓰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만기로 집에 갑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느님께 감사찬미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내와 가족들, 신부님과 많은 성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와 응원의 힘으로 무사히 출소합니다.

신부님!

징역에 온 것이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남은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신부님!

출소 후의 생활은 주님께 의탁하려고 합니다. 남은 삶을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최종훈 신부님의 묵상 글입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 위에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출소하면 신부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신부님,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들께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여지기 바랍니다.

2021. 03. 21

윤00 올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2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5/13~6/8)**

2021년 5월~6월에는 김도자 마리아, 우솔미 마리스텔라, 이승준, 이준순 마리아, 이흥재 요셉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작은나눔회, 정행자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신한 100-019-558299

우리 1005-700-335190
하나 209-910017-31705

국민 375301-04-003539